



소중한 자리~아버지~

어른들 사이에선 가끔 낯은 정과 기른 정 중 어느 쪽이 더 큰지를 논하기도 한다.

홈스케이 엄마로 살아가며 나 스스로에게도 던져 보던 질문이기도 하였다.

정답을 찾을 수 없는 부질없는 물음임을 잘 알지만, '정'이라는 문제엔 늘 잡음이 많은 듯 하다.

가장 예쁜 모습의 20세 소녀들이 '사랑'이라는 작은 설레임을 갖게 된 지 2주쯤 되어가는 요즘이다. 대학생이니만큼 이성교제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기에 예쁜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대화를 많이 나누며 소통 하고 있다. 통금 시간이 8시간인 우리 가정이 편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어기지 않으려 하는 아이들의 마음도 참 기특하다 싶으면서도 문득문득 밀려나는 서열이 느껴지면 서러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이다. 8년을 키우며 나는 관찮은 가방 하나 없이 지금도 레깅스나 청바지에 후드 티 차림일 때가 대부분이다. 그러면서도 내 아이들에게는 몇 십 만원 짜리 가방도 액세서리도 아끼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는데...이제 만난 지 몇 주 안 된 사람에게 밀리는 느낌을 받으니 섭섭함이 가득해지는게 내 솔직한 마음이다. 무언가를 바라며 해주는 일들은 아니었는데...막상 서운한 마음이 생기니 내가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데?가 먼저인걸 보니 참으로 몹쓸 사람인 거 같아 죄스러울 뿐이다. 늘 염두에 두던 아이들의 독립 시간이 빠를지도 모를 것 같은 허전함은 생각보다 일찍 올 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남자 친구 생겼다고 소식 들려주고, 우연히 카페에서 마주 친 우리 아이의 오빠야는 얼른 와서 인사를 꼭듯이 하고 예의와 성실함이 느껴지는 외모에...우리 아이가 걸 몇만 가득한 모습으로 사람을 보진 않는구나' 라는 안도감이 들었다.

그 긴 세월의 가정 교육은 이렇게도 표가 나니, 내 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찌 가볍게 여길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 '여자인 나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며 균형 있는 가정을 만들 수 있었을까?' 라며, 큰일에 항상 현명하고 대범한 남편이 곁에 있었음에 감사함이 생긴다.

얼마 전, 어떤 신문 기사에서 대부분의 가정은 아버지가 퇴근하기 전까지는 밝고, 웃음이 많다가도 퇴근 시간 이후부터는 조용히 각자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보통의 가정도 이런 모습을 보이니 다른 사람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웃을 수 있는 가정을 만든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2년



전쯤, 나와 같은 일을 하시는 아들의 친구 엄마를 만난 적이 있다. 그 분께서도 일을 하시며 가장 힘든 점이 남편 분이 아이들을 예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렇다보니, 다툼도 늘어나고 요즘 아이들은 눈치도 빠르니 학부모와 문제가 생기신다며 속상해 하시는 모습을 뵈는 적이 있다.

참으로 다행인 것 같다. 우리 가정의 아이들은 이모부를 잘 따르기도 했지만 의지도 많이 하는 것 같아 이모부라고 어려워하거나 피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가끔 외부에서는 평생 경찰 공무원으로 지냈으니 많이 언할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신다. 아빠 앞에서 장난치고 매달리는 모습은 각자의 가정에서도 해 보지 않았다고 아이들 입을 통해 전해 듣기도 했다. 이렇게 내 남편의 아빠 역할은 특별한 것이다.

그렇다고 항상 편하지만은 않는다. 아이들이 거짓말로 잘 못을 저지를 때는 아주 많이 엄격해진다.

그래서인지 아이들도 이제는 이모부를 잘 알

기에 '거짓말만큼은 하지 않으려 한다. 남편이 모든 것에 관대하지만 거짓말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어서 어린 시절 한 두 번씩은 호되게 야단을 맞기도 했었던 것이다.

그걸 모르고 뒤늦게 합류한 꼬맹이들은 함께 한 세월이 적은 탓인지 아직도 거짓말 때문에 종종 상담실에서 대화를 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다면 요 녀석들도 알게 될 것이고 잡하지 않을까 싶다.

몇 해전, 3년 반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던 아빠는 경찰 복직의 명령을 받아 한국에 잠시 돌아간 적이 있었다. 나도 아들도, 아이들 조차도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두려움과 허전함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다.

이 시기에는 늘 가던 마트를 갈 때도 주일 날에 교회를 가는 것도 즐겁지 않았었던 것 같다. 이유 없이 주눅이 들고, 무엇을 해도 당당하지 않은 우리들..

바로, 아빠는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는 이 유만으로 힘이 생기는 존재인 것이다.

홈스케이를 하며 여자인 나 홀로 아이들과 동동 거리며 지냈다면, 이렇게 안정된 가정으로서는 서있을 수 없을 것이다.

대화를 나눌 때도 아빠의 역할은 나와는 다르다. 내가 감정에 치우치고 식견이 좁다면, 아빠는 대화에 깊이가 있다. 처음 생활을 함께 시작하던 때에는 아이들이 이모부가 하시는 말씀에 졸음으로 대답했고, 명상을 할 때면 몸을 뒤척였는데... 조금씩 성장 하면서 주고 받는 대화가 되었고, 농담도 서슴치않는 말의 선수가 되었다. 어수선한 분위기를 느낄 때면 "명상 하자"라고 덤벼드는 당찬 아이들의 모습에 웃음이 날 때도 생기니 많이들 성장하였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훗날 엄마 아빠가 된다면..적어도 대화가 없어 소외되는 구성원이 생기는 가정은 만들지 않을 것이다.

실제 가정이든 우리네와 같은 홈스케이 가정에서의 아빠 역할이 중요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다. 물론, 엄마의 중간 역할이 잘 유지되었을 때 가능한 것은 당연한 일이니 엄마들도 역할을 잊지는 말아야 한다^^

두 부부가 완전체가 되는것이 자녀들에게 또는 함께 하는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아이들 앞에서 사이가 좋은 부부의 모습은 최고의 교육인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때로는 부엌에서 있는 엄마를 뒤에서 안아주는 모습도, 외출할 때 꼭 입맞춤 하는 모습도 보여 줄 수 있는 게 용돈 많이 주며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보다 값진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싶다.①